

박영숙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이사장님께서 주신 보충 원고를 최대한 반영해 김현아 작가가 최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교정도 두 번 보았습니다. 혹시나 4부와 5부 손글씨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전체를 한 번 읽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십시오. 교정을 보면서 불분명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희호 여사 인터뷰는 <엘리너 프로젝트> 부분에 넣었습니다.

화보는 작업 중입니다. 완성이 되면 여성재단 부분 등 후반부 사진 설명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될 겁니다.

프로필 사진 촬영 시에 정장 말고 캐주얼한 일상복(스웨터에 면바지) 또는 그루 스타일 옷을 입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촬영지는 강 총장님께 여성재단 옥상정원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책 제목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희망'을 키워드로 해서 수십 개 제목을 뽑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또한 구글리 친구(10대, 20대)들은 1위로 <박영숙의 희망 레시피>를 뽑았고, 2위로 <박영숙, 희망을 멘토링하다>를 뽑았습니다. 여성재단 쪽에도 여러 제목을 보내고 뽑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고는 다음 주중 여성재단에 나오실 때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374쪽에 나오는 <70세를 넘어 꽃피운 인생이었다>란 책을 빌려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어 원제목과 저자 이름을 알려 주시면 제가 구해볼 수도 있고요. 오가타 마사코로 일본어 책을 검색해 보았는데 이 책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감명 깊게 보셨다는 책이라 어떤 책인지 궁금하고 번역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2008.9.12

유승희 올림

차례

프롤로그: 박영숙에 대한 다른, 혹은 같은 기억 - 3

1부 공적 어머니를 꿈꾸다 1932-1954

1932년 평양 - 8

토스터와 재봉틀 - 9

보따리 무역상 - 11

세상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 14

공적인 삶을 살겠다 - 17

난중에 태어나 난중에 자란 아이 - 19

2부 평생 멘토를 만나 1955~1969

YWCA - 22

평생 멘토, 박예스터 - 25

청년부 간사 - 30

글로벌 리더러시 - 31

리더십은 동사 - 35

최연소 총무 - 38

별난 청혼 - 41

두 세계의 충돌 - 46

안병무 - 48

개천가 무허가 집 - 54

3부 여성 운동 한복판에서 1970~1986

잠깐 다녀올게 - 56

크리스찬 아카데미 - 61

생명문화창조운동 - 63

저항과 연대 - 66

교회와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어 - 68

3.8여성대회 - 71

권인숙 - 74

봄은 아직 멀리 있는데 - 78

거리에 선 영부인들 - 80

빅토리술 - 84

투쟁 속에 피는 꽃 - 87

박종철 - 90

삼배 수건과 카네이션 - 93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 - 95

마르다의 집 -97

4부 실천하는 지도자 1987~1992

또 다른 세계 -103

부총재에서 총재권한대행까지 - 104

정치인 박영숙 - 108

남녀고용평등법 - 113

가족법 개정 드라마 - 116

우리들의 죽음 - 121

올해의 여성상 - 122

5부 황혼은 없다 (또는) 영원한 현역 1993~

공부의 즐거움 -125

몽당연필과 BMW -127

리우환경회의 -129

녹색 거버넌스 -133

시련 -136

젠더 감수성이 환경과 만나 -140

패션모델 -145

엘리너 프로젝트 -149

딸들에게 희망을 -153

맑은 정치 - 161

돌봄 공동체를 꿈꾸며 -165

에필로그: 공성이불거 -168

2008. 9. 12

HERSTORY 001

박영숙의 희망 레시피(가제)

김현아 엮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전화(02)324-7486 팩스(02)323-2934
121-200

차례

프롤로그 박영숙에 대한 다른, 혹은 같은 기억 · 33

1. 공적인 삶을 꿈꾸다 (1932~1954)

1932년 평양 · 43

토스티와 재봉틀 · 47

보따리 무역상 · 51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 55

공적인 삶을 살겠다 · 61

난중에 태어나 난중에 자란 아이 · 66

2. 평생 멘토를 만나 (1955~1970)

젊은 날의 멘토 박에스터 · 73

YWCA 실무자 · 81

글로벌 리더십 · 85

리더십은 통사다 · 91

최연소 총무 · 98

별난 청혼과 평생 멘토 안병무 · 102

두 세계의 충돌 · 111

개천가 무허가 집 · 118

3. 여성 운동 한복판에서 (1970~1987)

아이와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 125

크리스찬아카데미 · 134

생명문화창조운동 · 139

저항과 연대 · 145

교회와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어 · 150

38여성대회 · 155

권인숙 · 163

봄은 아직 멀리 있는데 · 169

거리에 선 영부인들 · 174

빅토리술 · 178

투쟁 속에 피는 꽃 · 184

박종철 · 190

삼베 수건과 카네이션 · 196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 · 201

마르다의 집 · 205

4. 새로운 도전 (1987~1991)

또 다른 세계 · 217

부총재에서 총재권한대행까지 · 221

정치인 박영숙 · 229

남녀고용평등법 · 244

가족법 개정 드라마 · 248

우리들의 죽음 · 258

올해의 여성상 · 263

5. 영원한 현역이고 실타 (1992~)

용당연필과 BMW · 271

리우지구정상회의 · 276

공부의 즐거움 · 284	
녹색 거버넌스 · 291	
시련 · 301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위원장, 정부를 비판하다 · 307	
박영숙의 환경 이야기 · 312	
젠더 감수성이 환경과 만나 · 318	
패션모델 · 327	
엘리너 프로젝트 · 335	
딸들에게 희망을 · 343	4
딸들이 밝힌 웃음의 힘 · 355	6
사오정 오륙도를 넘어 · 361	7
에필로그 인생 삼모작 · 371	7

주	319
참고문헌	381
박영숙 선생이 걸어온 길	384
역은이 후기	388

프롤로그

박영숙에 대한 다른, 혹은 같은 기억

“70년대에는 거의 날마다 만나고 살았지요. 그 당시엔 우리를 담당하던 형사들이 있었어요. 매일 우리 동향을 파악하고 어딜 가나 따라다녔지요. 그날도 모임이 있어서 박 선생님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니 아무리 무지워도 양손에 들고 버스를 타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역시나 형사들이 뒤따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몹시 만원이라 우릴 놓쳤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때 박 선생님 담당 형사가 신 형사였는데 박 선생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야, 내려.’ 하고 큰소리로 불렀어요. 하하하. 그러니까 그 큰 덩치가 부라부라 따라 내리는데, 그 옆에서 내가 얼마나 웃었다고 덩치가 산만 한 형사한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야, 내려.’ 하는데 정말 웃겼다니깐요. 하하하. 투쟁 속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싸우면서도 늘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투쟁할까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했지요.”

구속자가족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앞장섰던 이종옥

(70대 초 이해동 목사 부인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로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동지 박영숙에 대한 기억을 꺼냈다. 어제 일인 듯 생생한 기억 속에서 박영숙은 용감하고 젊다.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나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건 전혀 안 보이는 분이셨어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 오해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오해라면 뭐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는 식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왜 인사를 안 받았겠어요. 한 가지 문제에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걸 못 보고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는 편이라 때로 그런 이상한 오해를 받곤 했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던 거 같아요. 나도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야단맞으면서도 열심히 쫓아다니며 배웠어요. 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옆에서 배운다는 게 귀한 경험이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성신학자 안상남(70대 중, 『여성신학 이야기』를 썼다)은 조근조근 차분하게 교회 여성 운동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의 박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여성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아끼는 또 다른 여성의 배려가 느껴지는 이야기 속에서 박영숙은 몰입과 집중이 뛰어난, 그러나 조금은 외골수인 활동가다.

“선생님은 나의 로망이죠. 멋있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게다가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그 연세에 청년과 같은 정열과 역

사의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불가사의하죠. 젊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심지어 요즘은 귀여워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3, 4시면 일어나서 공부하시지, 일상도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살지. 박 선생님을 볼 때마다 질문해 봐요. 내가 77세에 어떻게 멋있고 유능할 수 있을까,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현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무엇보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시민운동가로서 역할을 해낸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멋지게 다시 운동가의 삶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쉬운 건 말이지요, 덩치가 달라서 옷을 못 물려 입는다는 거죠. 그 멋진 옷들을 말아야, 하하. 애정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선배라고 생각해요. ‘구구 팔팔’하게 사는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고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일을 함께한 이상덕(50대 중,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은 시원시원하게 때로는 꼼꼼하게 박영숙의 정치 활동 시절을 정리해 주었다. 자랑스러운 상관에 대한 자부심과 지나치게 엄격한 일 처리 방식이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었다. 치열했던 시간이 흘러 이제 누군가의 역할 모델 혹은 로망이 되는 박영숙의 얼굴은 조금 편안하고 넉넉하다.

“아마 1994년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당시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사회적 논쟁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한편에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다

딸들이 밝힌 촛불의 힘

2008년 6월 10일, 87년 6·10 민주항쟁 21주년이 되는 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모여 일렁이며 춤추며 그야말로 '촛불의 길'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촛불 문화제', '촛불 시위', '촛불 항쟁'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 이 촛불의 바다는 '거대한 민주주의 배움터' 구실을 해내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박영숙이 이번 촛불 정국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00만 인파가 100일 동안 촛불을 밝혔고 이 대장정을 촉발한 것이 10대 소녀들이었다는 점이다.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소녀들이 급식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그들의 삶을 옥죄는 교육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것이 이 대장정의 발화점이었다. 소녀들이 밝힌 촛불은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들, 하이힐의 직장 여성들, 시민들, 운동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시청 광장으로 불러모았고 해외의 촛불 집회를 이끌어 내고 급기야는 미국 언론을 비롯한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다. 이 촛불 거사는 한국의 정치사, 사회 운동사, 여성사에 있어 촛불 시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운동의 주체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촛불 시위 이전과 그 이후의 주체들을 구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들 한다. 특히 한국 여성 운동사에서 촛불 시위를 기점으로 그 전후의 여성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지금까지 여성 운동에서도 소녀들은 운동의 대상이었다. 어린 소녀들은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촛불 대행진을 통해 소녀들은 피보호자, 관리 대상, 보살핌의 대상이 더는 아니며 다른 누군가가 일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자기의 주권 의식을 행사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행위자임을 입증했다. 성숙한 시민 사회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조, 독립, 자율 정신을 보여 준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추정되던 소녀들, 탈정치적으로 보이던 평범한 여성들이 피동적 '대중'에서 능동적 '다중'이 된 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에서 기인한다.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일상의 한 부분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고 분노하고 격려하며 낯설고도 신선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실천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촛불 시위는 관례와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세대들에 충격과 동시에 희망을 던져 주었다. 박영숙 역시 이 어린 딸들에게서 또 하나의 미래를 읽어 내고 있다. 한편으로 그동안 여성재단이 꾸준히 지원해 온 여성의 정치

세력화 활동이 이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다.

한국여성재단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특정 지원 사업의 하나로 여성의 의회 진출을 독려하는 활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321개 여성 단체들이 결속하여 100여 명의 여성 후보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후보 당선 운동과 유권자 운동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재단이 주축이 되어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운영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제17대 국회에 여성 의원 40명이 진출하면서 2004년을 '여성 정치 원년'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2005년 3월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세기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2005년은 양성 평등을 가로막는 마지막 족쇄를 제거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이 두 자리 숫자인 13.4%를 차지했는데, 비록 세계 평균치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여성 의원 비율 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이 나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언론은 원내에서 여성 의원이 두 개의 교섭 단체를 꾸릴 수 있으며 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여성 의원이 들러리가 아닌 실세로서 인구 절반의 요구를 당당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다고 했다.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를 이루어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여성의 정치 세력화 운동의 지형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끈질긴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남성 주도의 부패 청치를 척결하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맞물리면서 여성들이 정당의 대표로, 대변인으로,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앞장서서 이끌어 낸 제17대 국회에는 여성 의원들을 포함해 과반수가 넘는 초선 의원들이 진출했다. 정치 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제고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여성 의원 40명과 전체 의원 과반수를 넘는 초선 의원의 의정 활동 결과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했다.

성장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행정부와 민생은 밋전에 두고 권력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을 향해,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 행정과 정치를 하라고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촛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은 민주화 운동에서, 모금 활동에서, 그리고 여성 운동에서 평범한 80%의 참여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교훈이다. 어떤 이는 "6월의 밤을 뜨겁게 달군 촛불이 미국 쇠고기가 불러온 생활의 정치를 넘어 사회 문화적 개혁의 지평을 열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야 한다. 그 질문의 답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있다고 박영숙은 생각한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나눔과 돌봄의 사회, 자연과 조화되는 사회, 빈곤이 여성에게 치우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촛불은 그 변혁의 시작을 예고했고 그 중심에 버닝 걸스, 10대 소녀

사오정 오륙도를 넘어서

70대에 들어서면서 박영숙의 활동 영역은 평생을 바쳐 물두해온 여성 운동과 환경 운동을 뛰어넘어 사회 통합적인 문제로 전이된다. 전체 사회를 통찰하고 아우르는 운동의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서게 된 건 그녀가 이제 한국 사회의 '원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영숙 개인의 경험은 한 사회의 경험으로 축적되었고 그녀의 삶은 한 사회의 공식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기꺼이 그녀를 '원로'라 부르는 건 그녀 삶의 행로가 이 사회에 끼친 공로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한 사회의 원로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원로란 인격을 실어 당대를 담보해 내고 사회를 이끌어 갈 담론을 생산해 냈으며,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사리와 사욕을 위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들의 발언이 가치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그 삶의 진실성 때문이다.

박영숙이 '원로' 그룹으로 자신이 분류되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건 '희망포럼' 때부터다. 2004년 가을 문국현, 오충일, 이형모, 정현백, 이필상, 최열 등 시민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05년 해방 6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60이란 인간의 나이로 하면 환갑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환갑은 한 순환을 의미한다. 끝이자 시작이며, 양적으로 채우고, 질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국가 공동체도 60년이 되면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날 모임에서 이들은 당시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민생 파탄,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독식의 논리에 근거를 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의 삶을 피폐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는 양극화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안하고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런 논의는 분명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야말로 한 사회의 시니어들이 의견을 내고 토의할 법한 의제였다. 회의를 마친 이들은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 토론과 제안,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합해 2005년 새해 벽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월 6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188명의 사회 원로들이 모여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 희망 제안을 선포한다. 김수환, 강원용, 청화, 이선종, 강영훈, 서영훈, 백낙

들이 있었다. 이 소녀들이 정치 세력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제17대 총선에 관련된 한시적 기구들은 선거가 끝난 후 2004년 6월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정치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양성 평등 사회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임을 깨닫게 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2004년 의정사상 유례없는 숫자의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2005년에는 여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제도 개혁과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여성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역사가 새롭게 기술되는 감동을 경험해 왔다. 그야말로 21세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의 시대임을 입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UNDP가 발표한 「2006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간 개발 지수에서 전체 조사 대상국 177개 나라 중에서 26위에 올랐으나, 여성 권한 척도는 53위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여성 의원,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진출 비율이 모두 조사 대상국 평균치로 결과가 나왔다. 이 사실은 한국 사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으나 그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가치의 불분명 구조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정치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

라 일상생활의 모순과 갈등을 풀기 위한 최전선임을 생각한다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지속되어야 한다. 여성 정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과의 연계, 정부 정책에의 적극적 관여, 그리고 무엇보다 풀뿌리 여성 조직들의 확산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 정치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전여민회 조직국장 임원정국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펼쳐 가고 있는 ‘지역의 희망, 여성의 정치 참여—정치 횡단 프로젝트’는 나의 또 다른 출발을 알리는 신호다. 지난 3월 ‘아주 특별한 여성 리더십’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성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혼자 생각으로만 그치거나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성의 눈으로 지역 살림을 보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아 보고, 직접 현장에서 같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앞으로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길 위에서 나의 길’을 찾게 해주었기 때문이다.”¹⁶

이피호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숙 선생님의 생애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김현아입니다.
이러 인터뷰와 자료들을 통해 박 선생님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피호 선생님과 박영숙 선생님의 인연이 참 각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YWCA에서 전임사와 후임자로서의 만남

이후 구속지가죽업의회 활동과 민주회 운동

그리고 정치 활동

다시 사랑의신구들과 한국여성재단까지

두 분의 활약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사에서 복변하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숙 선생님의 관련 책에는

이피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피호 선생님이 아는 박영숙 선생님의 관련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책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틈을 내어 도와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디운 여반

건강히 잘 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문

1. 박영숙 선생님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2. 박영숙 선생님과 함께 하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함께 일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 숨은 일화가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3. 박영숙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4. 박영숙 선생님이 한국 여성 운동사와 한국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 이 밖에도 박영숙 선생님과 관련한 인물 중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락처: 김현아

사진 100컷

아버지

어머니

육남매

만주 동영학교

평양

여고

대학

YWCA

박에스터 (함께)

호주, 뉴질랜드 연수

기독교 청년 함께

이희호 함께

결혼식

남편, 아들, 선천댁과 함께

수유리집 파티

여협,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연, 대책위

평민당

국회

BMW 모습

영국 유학

패션모델

사랑의 친구

여성재단

최근(아메바, 촛불시위)

안동환생일지

최후의 순간

6.10 일지

Harbin show

후안이이리

희생포럼

안동환

이연희

노병국

박재필

김영환

이근배

소품: 친필, 사인, 몽당연필, 빅토리솔, 삼베수건, 재권 편지, 목걸이, 티스폰, 십자수 손수건

~ ~ ~